



지난 1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09 신문·미디어 엑스포 광주일보 부스에 수도권 지역 광주·전남 향우를 비롯한 관람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40년전 ‘쌍나팔’ 코너 아직도 있네요”

고양 ‘신문·미디어박람회’ 광주일보 부스 향우 발길 줄이어



“1980년 5월에 광주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신문과 사진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40년 전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신문에 서 본 ‘쌍나팔’ 코너는 아직도 있나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2009 신문·미디어박람회’ 광주일보 부스에 수백여명의 광주·전남지역 향우들이 찾아 향수를 달랬다.

지난 1일 시작돼 5일까지 고양시 일산구 킨텍스 전시관에서 열리는 신문 박람회에는

광주일보와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전국 47개 신문사들의 홍보관이 설치돼 있다.

호남의 대표 정문지인 광주일보는 4·19혁명, 5·18민중항쟁, 6월항쟁 등 ‘한국 민주주의와 함께한 광주일보 57년’과 ‘광주일보 시·사문화 시대를 울리고 웃기다’란 주제로 홍보관을 열었다.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수도권지역 광주·전남출신 향우들은 아들·딸, 손자·손녀들 가족들과 함께 광주일보 부스를 방문, 5·18을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고, 6월항쟁 등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일을 당시 신문으로 접하며 감회에 젖기도 했다.

광주에서 고교를 졸업했다는 반백의 한 노신사는 출항하기 전까지 20여년을 광주일보의 전신인 구 전남일보를 구독했었다며 그 당시 전남일보 신문을 다시 보게돼 감격스럽다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특히 광주일보가 배출한 만화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나대로 선생’의 이흥우, ‘울순 아지매’의 정운경, ‘고바우 영감’의 안의섭 화백 등 내로라하는 스타만화가들을 배출한 신문이라는 설명에 호기심과 함께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또, 과거에 발행했던 신문을 구해달라거나 수도권에서도 광주일보를 구독할 수 있는지 묻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우수 보도사진전에 광주일보가 전시한 사진 또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열린 민주성회를 찍은 사진은 당시로서는 드문 ‘컬러’ 필름으로 촬영, 눈길을 끌었다. 온몸 노란 유채꽃으로 물든 완도 청산도 모습도 관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또 월드컵 4강진화를 이룩했던 광주 월드컵 8강전 사진은 그 당시의 감동을 그대로 전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강운석(57·고양시 일산구)씨는 “20여년 전 광주에서 살 때 광주일보를 구독했었는데 이곳에서 다시 보게 돼 너무 반갑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식을 발빠르고 정확히 전해주고 호남을 대표하는 신문으로서 뿌리깊은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대만자본 J프로젝트 투자 유보 내막

정부 판죽 걸기 외자 내쫓은 꼴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판죽 걸기’로 위기를 맞고 있다.

J프로젝트 사업부지 가운데 한 곳인 ‘송천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던 미국 트러스 그룹이 최근 한국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곳에 대규모 농어업회사 조성을 강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미루고 있는데, 함께 투자를 하기로 했던 대만자본이 투자를 잠정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자본 투자 보류와 SPC 설립 연기 배경=외국 자본의 투자 및 SPC 설립 보류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맞고 있지만, 정부의 J프로젝트 ‘판죽 걸기’가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트러스(TRUSS)그룹의 차이

정치상황과 국제경기 위기 등의 이유로 당장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주그룹의 투자 보류 배경에는 대만 정부와 여론이 “자국 경기도 어려운데, 무슨 외국 투자냐?”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탓도 있지만, SPC 설립이 늦어지면서 투자 의지가 꺾인 것으로 보인다.

◇외자유치 가능할까? =농림식품부가 ‘송천지구’ 일부 간척지에 대한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강행 의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SPC 설립 지연 또는 외자유치가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J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외자유치는 정부의 ‘양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곳에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을 추진중인 농림식품부는 아직까지 “투자의향이 아닌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실질적인 외국 자본 투자가 이뤄져야 간척지 땅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양보 없이 투자유치 난망

J프로젝트 사업 축소·지연 불가피

나텔(ChinaTel)사와 대만 후주그룹은 지난해 7월4일 전남도와 J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45억 달러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투자사는 15.41km 부지의 ‘송천지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특급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트러스그룹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중 서울에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농림식품부가 ‘송천지구’ 일부 간척지에 농어업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 등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트러스 그룹이 SPC 설립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트러스 그룹은 애초 지난 3월 SPC 설립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4월로 연기했다가 다시 5월로 미뤘다. 트러스그룹이 이처럼 부지 확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투자유치 체결 단계에서부터 송천지구 15.41km 부지 전체 개발을 원했기 때문이다.

SPC 설립이 미뤄지면서 투자사들도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등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트러스 그룹이 설립할 SPC에 투자할 계획이었던 후주그룹은 최근 국내

반면, ‘송천지구’ 투자 주관사인 트러스 그룹은 땅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SPC 설립이나 한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현재 트러스 그룹을 적극적으로 설득중이다.

SPC 설립을 통해 외국 자본이 투자되면 농림식품부가 한 발 물러설 것으로 전망하고 트러스 그룹 측은 “조속히 SPC 설립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트러스 그룹 측이 한국적인 상황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외자유치를 맡은 트러스 그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SPC 설립을 이룰 것으로 마무리 짓고 농림식품부와 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러스 그룹이 한국 정부를 믿지 못하고 SPC 설립을 계속해서 지연하거나 농림식품부의 ‘양보’가 없을 경우 외자유치는 힘들 것으로 예상돼 J프로젝트 사업은 애초 사업 계획에서 축소 또는 순차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

실사서 드러난 U대회 경쟁도시 장단점

캐나다 에드먼턴에 대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실사가 4일 끝남에 따라 광주시, 대만 타이베이 등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유치신청 3개 도시들간 치열한 득표전이 시작됐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FISU 실사는 대만 타이베이(3~5일), 광주(6일~9일), 캐나다 에드먼턴(5월1일~4일)순으로 진행됐다. 이들 도시들은 실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의 대회 지원 의지면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각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실사 첫날 관저에서 실사단을 영접,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페인 버그 단장 등 실사단을 만나 “광주가 U대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캐나다에서도 론 스티븐스(Ron Stevens) 앨버타주 부수상 겸 국제부장관이 실사단을 맞았다. 그러나 광주시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스포츠 인프라 측면에

광주, 시설 보완·활용... 스포츠 인프라 월등

타이베이 실내체육관 부족·에드먼턴 경기장 노후 한계

서는 후보 도시들간 역량이 드러났다. 광주시가 U대회 17개 정식종목을 치를 경기장 가운데 수영장만을 신축 시설로 제시한 반면, 타이베이와 에드먼턴은 경기장의 3분의 1 가량을 신축하겠다고 제안했다. 시는 이같은 경기장 시설 확충 계획에서 타 도시를 앞선 것으로 보고 있다. FISU가 올해 U대회지인 세르비아에서 경기장 신축 차질로 경기일정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이번 실사에서 경기장 신축보다는 기존 시설 보완·활용에 가점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쉬운 대목은 실사단이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국제적인 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평가한 점이다. 대만의 경우 타이베이 다목적 실내경기장과 신축중인 수영·다이빙 센터, 문화대학 스포츠 홀 등을 제시했지만, 배구,

핸드볼, 농구 등 실내 체육관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부각됐다. 에드먼턴은 지난 1983년 제12회 U대회를 개최한 도시지만 현재 보유 중인 대부분 스포츠 인프라가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 경기장이라는 점이 한계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이번 실사에서 드러난 타이베이와 에드먼턴의 도시 환경·스포츠 여건 등을 분석, 광주의 유치 당위성과 강점을 내세워 개최지 표결에 참여하는 FISU 집행위원들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유럽 집행위원들의 표심이 개최지 결정에 중대변수인 만큼 유럽표 공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집행 위원들은 유럽권(13명), 아시아권(7명), 아프리카권(4명), 미 주 지역(3명)으로 분포돼 있다. /윤영기기자 zenfoot@kwangju.co.kr

조이 여행사

234-3222

8월 10일~17일

북경 3박4일 (OZ) 379,000

상해 항주 소주 4일 (KE) 389,000

제주 2박3일 패키지 여행

88,000

항공+선박 138,000

카멜리아로 떠나는 큐슈 온천여행 3/4일

(일회) 329,000 (야마나미동나무꾼도)

(정액) 419,000 (특급호텔)

주말 구중산동반 3일 279,000

대마도 3일 379,000

제주항공 노후기

큐슈 온천여행 3일 585,000

대마도 3일 605,000

나카사키 항공 노후기 3일 655,000

오사카 나라 코코에서 첫부터 한번에 775,000